

올 하반기 시민감사관 감사 착수

도교육청, 1~2반으로 나눠 지자체와 교육협력 추진현황·추진과제 검토 등 총 6건 점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25일까지 10일간 1층 놀음자리에서 2022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감사 대상은 총 6건으로, 지난 7월 제2회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이에 감사 1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추진현황 및 추진과제 검토 △학생안전관리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창의예술미래공간 조성

사업 진행현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 감사 2반에서는 △미래교육중심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 강화방안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기관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검토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실태조사와 점검 및 발전방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 대상 안전별도 건축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의원 등 10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감사 종료 후에는 교육감에게 시민감사관협의회 명의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은 그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해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

화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감사 대상 부서에 시민감사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조사, 평가를 위해 변호사·건축사·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 202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제6기 시민감사관 10명을 구성 후 첫 번째 실시하는 실질감사다. /정은성 기자

“대학의 담대한 변화 주도”

전북대 총장 선거 출사표' 송양호 교수 1인당 교육비 연 2600만원 확보 등 제시



“‘대학혁신본부’ 설치를 통한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송양호 교수(법학전문대학원·사진)가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9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 ‘국내 Top10, 글로벌 Top100 도약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기치로 교육과 연구 등 대학 혁신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선도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과 △국내 Top10, 글로벌 Top100을 향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1인당 교육비 연 2600만원 확보, △대학자신 기술사업화 육성, △글로벌 대학을 향한 OASIS 학사지원 및 LMS 강의지원 영문 시스템 구축, △미래를 위한 행정 인적자원의 역할 강화, △건장중진 기금 80억 조성, △열린 공간 행정 실현, △발전재단 1000억 원 유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등이다.

송 교수는 출마선언을 통해 “전북대 앞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중도탈락률 증가, 수도권 집중화 기술사회 변화와 같은 거대한 과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며 “혁신을 통한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시작으로 대학혁신을 주도할 ‘대학혁신본부’를 설치해 학생교육부터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 등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세계적인 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인성교육 및 기초학력 강화와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 교육, 학생중심 개인화 교육,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 교육, 평생에 평생교육, 전북권역 교양허브

중심대학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Top100을 향한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해 지역이전 혁신기관 및 연구소와 연계한 융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4년간 120억 원을 투입해 10개 우수학과와 월드 클래스 특성화 연구소 1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고 미래에 도전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스타디움 100개 개설과, 취·창업 연계가 가능한 학생경력관리 플랫폼 고도화, 그리고 1인당 교육비를 연 2600만 원으로 끌어 올려 수도권 우수 사립대와 버금가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의 기업유치 지원에 힘쓰고, 산학융합플라자와 캠퍼스혁신파크, 정읍 첨단과학캠퍼스 구축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지역발전의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교수는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변화를 넘어 지역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구 노력과 함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안정적 대학재정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2026년까지 대학재정 8,000억 원 시대를 열고 나아가 매일 1억 원의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양호 교수는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학협력 부총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등의 대학 내 보직을 지냈으며, 전라북도 국제법률지원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업(일반기계) 등 3개 직렬에서 총 5명을 선발하는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10명이 응시해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은 지난 10월 29일 치러졌으며, 합격자는 공업(일반기계) 3명, 공업(일반전기) 1명, 사설(건축) 1명 총 5명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인성검사는 11월 22일, 면접시험은 12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면접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4일 5층 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등 저소득 위기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위기가정 학생에 든든한 울타리

도교육청,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3곳과 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5층 회의실에서 저소득 위기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오아름),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본부장 김동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

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과 각 기관은 도내 저소득가정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

또한 각 기관은 교육활동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하며, 지원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심리·생활환경 등 다양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북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심리·생활환경 등 다양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북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문대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분석 포럼

전주비전대, 계명문화대 등 4개 대학과 공동으로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계명문화대, 서일대, 전북과대학, 한국영상대 등 4개 대학과 공동으로 ‘제3회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분석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계명문화대 보건관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2회 포럼에 이어 데이터 기반의 교육성과와 학생관련 요인들을 분석, 전문대학에 적합한 학생성공모델을 도출하는 등 대학별 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전주비전대 김수현 교수를 비롯한 각 대학의 교수들이 ‘전문대학생이 인식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연구’, ‘머신러닝을 활용한 핵심역량 기반 학업성취 예측 모델 탐색’ 등 총 14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전주비전대 이원휘 학사처장, 최승훈 링크3.0 사업단장 및 황상태 팀장 등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전주비전대를 포함한 14개 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25개 전문대학이 토론에 참여해 발표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선정, 공유와 협업을 통한 자가확장형 선순환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한 혁신 주도형 창의인재양성,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고품질 산학협력,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과 공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보험회사 ESG 경영,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주대, 보험관련전공 연합 학술대회 ‘우수상’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이 전국대학 보험관련전공 연합대회(이하 전보련)가 주최한 2022년 전국대학 보험관련전공 연합학술대회에서 2위에 입상, 우수상(순해보험협회장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원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보련 연합학술대회에는 대구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전주대학교,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전국대학에서 보험 관련 전공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팀들의 다양한 학술논문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대회에서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팀명 리버티(선정안 이윤상 조하진 양주안)는 ‘보험회사의 ESG



경영이 소비자 만족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팀장인 선정안 학생은 “입학 이후 코로나 위기로 공모전이나 학술대회 등의 행사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돼 대학 생활을 즐길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쉬웠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해 논문과 발표를 준비하

는 과정에서 같은 과 학우들과 많은 추억을 쌓아 너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보련 참여를 지도한 이현복 교수는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ESG 경영이 보험가입자의 보험상품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연구와 실증연구로 밝혀 학문적, 실용적 의의가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것이 수상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학과 전한덕)는 작년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순해보험협회장상)을 받는 등 전공 관련 공모전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은성 기자

학·군 네트워크 구축 상호지원

우석대·육군방공학교

학술교류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육군방공학교(학교장 이경주 준장)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학술교류 협약 체결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이경주 육군방공학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학생



및 군 장병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술 연구자료 교환 △학생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학생 현장 실무교육(OT) △나라사랑 교육 및 체험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군 계열학과(군사학과·군사인보학과·군사기

술학과)를 중심으로 육군방공학교와 학·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남천현 총장은 “육군방공학교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점차 큰 조급 간부로 성장할 우리 학생들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주 육군방공학교장은 “우석대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그 결과가 육군의 강한 전투력으로 구현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 주세요



지난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2022 시즌2 현장.

가족회사 판로 개척 ‘구슬땀’

전북대 LINC3.0 사업단, 메가쇼 2022 시즌2 참여

더웬협동조합 등 3개 업체 마케팅 지원... 큰 호응

전북대학교 LINC3.0 사업단(단장 송철규)은 최근 열린 국내외 박람회를 통해 가족회사의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다방면으로 지원, 지역 기업체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단은 지난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2022 시즌2에 참여해 더웬협동조합 등 3개 가족회사의 마케팅을 지원했다.

전북대 가족회사인 더웬협동조합은 LINC3.0 사업단이 지난 2018년부터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전북대 가족회사인 더웬협동조합은 LINC3.0 사업단이 지난 2018년부터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송철규 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가족회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학 혁신의 핵심이 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